

대한전선, 始興공장 매각

대한전선이 시흥공장을 전격 매각했다.

대한전선은 지난 22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공장 토지 2만5천915평과 건물 2만3천739평을 (주)지티앤이에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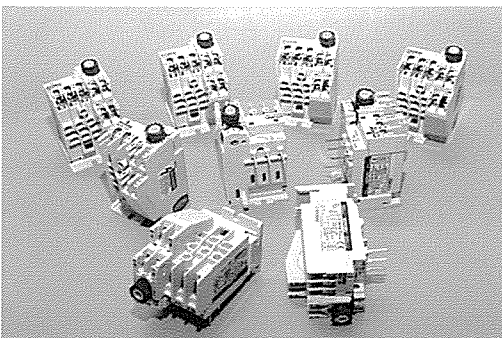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매각대금은 총 1천295억7천500만원, 대금의 5%인 65억원은 지난 15일 계약시 지불했으며 잔금 1천230억원은 12개월 이내에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부동산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시흥공장의 생산설비는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안산공장이나 신규임대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시흥공장에서 저압전선, 전력기기, 초고압 부속자재 등을 생산해 오다 지난해 저압전선 설비를 타사에 매각한 바 있다.

한편 대한전선은 지난달 (주)진로에 대한 793억원의 채권을 매입한 데 이어 이달 10일 또다시 1천 802억원의 채권을 매입,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현대중, 차단기 'UL마크' 획득



현대중공업(대표 최길선·민계식)이 생산하는 중저압차단기 관련제품 29종이 국제공인 안전규격인 UL인증을 획득했다.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지난 21일 전자접촉기 19종과 계전기 10종에 대해 지난달 미국 UL인증단의 검사를 받아 최근 합격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동기의 전원장치인 전자개폐

기에 주로 사용되는 기기로 이번에 규격과 용량별로 다양한 제품이 UL인증을 받아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층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캐나다 MGI사로부터 전자개폐기를 수주하는 등 UL인증 획득으로 인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며 “기존의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외에 미주 지역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UL인증 획득으로 국내외 전기부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UL(Underwrite Laboratories Inc.)인증은 미국 보험협회안전시험소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안전규격인증으로 심사 절차가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전선, 2분기 매출 5천19억

LG전선(대표 한동규)은 올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천19억원과 258억원을 기록,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6.0%와 18.3% 증가했다고 밝혔다.

LG전선은 이 같은 실적은 매출액 4천796억원에 영업이익 247억원을 기록했던 1분기에 비해서도 각각 4.6%와 4.5%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47억원과 249억원을 기록,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4%와 3.1% 줄었으나 1분기에 비해서는 111.6%와 118.4% 증가했다고 LG전선은 밝혔다.

넥상스, 극동전선 상호 심벌 유지

넥상스에 인수된 극동전선(대표 최병철)이 상호와 심벌은 그대로 유지기로 했다.

극동전선은 지난 5월 프랑스의 세계적 전선업체인 넥상스에 편입된 이후 상호변경 여부 및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 넥상스와 협의해 왔다.

지난 22일 극동전선은 “선박용전선 분야에서 세계 1위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며 “기존 상호를 유지하는 것이 국내외 영업력 강화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극동전선은 또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제품 카탈로그, 명함 등에 넥상스 상호를 병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모기업 넥상스와 내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규 LG전선 사장 “기술과 조직의 융합이 경쟁력 관건”

한동규 LG전선 사장은 지난 21일 대한전기학회 주최로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기술은 물론 기업 내외 각 조직간 협업이 경쟁력 강화의 관건” 이라고 강조하고 “기업 내부 조직은 물론 외부 연구소, 학계 등 다양한 전문 커뮤니티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모방 불가능한 독창적·독자적 지적재산권을 개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 사장은 LG전선의 광복합가공지선(OPGW)을 예로 들며 “2년 전에는 단일 사업부 내 2개 부서가 3개 기술만을 조합해 개발에 착수했다가 결국 포기단계에까지 몰렸으나 이후 3개 사업부 8개 부서가 20여개 기술을 융합해 개발에 재도전, 결국 판매가격을 40% 낮춰 1700억원의 해외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고 소개했다.

케이티파워, 지능형 변전실 ‘3자 단가계약 제품’ 선정

케이티파워(대표 박기주)가 조달청으로부터 지능형(패키지) 변전실에 대해 ‘3자 단가계약 제품’으로 선정됐다.

3자단가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소요되고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와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해 미리 단가안을 정해 관보 공고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3자단가 계약시에는 조달수수료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도 종전에는 30일이 소요된 데 비해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케이티파워는 “이번 3자단가 계약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성을 더욱 더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더 싼 가격에 고품질·고신뢰성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제3자 단가계약 물품요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앙조달에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계약업체에 납품을 요구하게 되고,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중원전기, 폴리머 서지흡서버 출시

배전기자재 전문업체인 중원전기공업이 국내 최초로 '폴리머 서지 흡서버'를 출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방압성능이 우수하고 완벽한 기밀구조로 제작돼 오손지역이나 옥외용으로도 사용하기 적합하다. 또 오래 사용해도 특성변화 없이 우수한 서지 흡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한 일체형으로 사출 성형된 폴리머 재질의 하우징 내에 비직선형 금속산화물 소자를 FRP 필라멘트로 감아 수납함으로써 방압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폭발 및 비산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없다. 이외에도 경량·소량화로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하며 하우징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강하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완벽한 성능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제품보다 성능과 품질이 월등하다"며 "수배전반업체 등 전국의 수요처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지 흡서버(Surge Absorber)는 교류전력계통에서 지락사고 및 회로개폐시 발생하는 이상과전압을 억제함으로써 전력기기 및 계통회로를 보호하는 기기로서 폴리머를 절연재질로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평일산업, 한전 개폐기 연간단가 선정

지난 15일 평일산업(대표 김봉주)은 총 38억원 규모의 개폐기 접속자재류 15개 품목에 대한 연간 단가 입찰에서 선정업체로 지정되었다.

이번 개폐기 접속자재류 입찰은 평일산업을 포함해 3개사가 응찰, 지난해에 이어 평일산업이 또다시 낙찰자로 선정되어 한전과 1년간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 품목은 데드브레이크형 개폐기접속재(325SQ·200SQ·60SQ 별도), 지중용 절연테이프, 지중용 엘보커넥터, 지중용 절연플러그, 지중용 접속플러그, 접속단자(325SQ·200SQ·60SQ 별도), 케이블어댑터(325SQ·200SQ·60SQ 별도), 지중용 절연캡데드브레이크형, 지중용 붓싱의 스텐트 등 총 15개 품목이다.